국경 너머의 독자를 만나다

글 | 편혜영

첫 번째 낭독회는 캐나다 밴쿠버의 UBC였다. 밴쿠버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춥다기보다는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머리가 맑아졌다. 숙소에서 낭독회장이 있는 아시안센터까지 가는 길에 캠퍼스를 약간 헤맸다. 이미 몇 사람에게 길을 물었으나 매번 새로운 갈림길이 나타나면 주저하게 되었다. 길을 헤매는 동안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울창한 작은 숲에 도착했다. 오래된 나무들이 풍기는 냄새와 아침녘에 비가 내려 땅 밑으로 내려앉은 공기들이 뿜어내는 냄새, 축축하게 젖은 잎들이 풍기는 냄새가 청명하게 뒤섞여 있었고 어두워지는 초겨울 숲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숲을 지나자 낭독회장으로 가는 길이 한눈에 보였다. 다소 헤매며 겨울 숲을 거니는 동안 차가운 공기를 쐰 탓에 전날의 오랜 비행의 피로와 시차에서 오는 피로를 거의 씻을 수 있었다.

차가운 공기처럼 또랑한 눈매를 가진 청중들 앞에서 나는 '첫번째 기념일' 이라는 작품을 읽었다. 시종일관 책에 눈을 두고 있는데도 회장에 가득 찬 청중들의 주의 깊은 눈매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인지 오래전에 쓴 글도 아닌데 문장은 못마땅했고 연극적 어조를 자제하느라 쌀쌀맞게 들리는 목소리가 못마땅했다. 청중들이 딴 짓을 하거나 저희들끼리 떠들거나 졸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회장은 고요해졌다.

UBC를 시작으로, UCI, Smith College와 Darthmouth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에서의 낭독회가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이어졌다. 학교마다 청중 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은 같았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수의 지도로 미리 해당 작품을 읽고 와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질문해오기도 했고 어떤 학교에서는 미처 작품을 읽지 못해 낭독한 부분을 토대로 작품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한국문학을 처음 접한 청중들은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경향이나 여성 작가들의 작품 경향의 변화 같은 것을 묻기도 했다. 어떤 질문은 유쾌했고 어떤 질문에는 익숙했으며 어떤 질문은 조바심이 났다. 한국문학을 접해본 적 없는 외국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좀 더 많은 작품이 번역되고 대중에게 소개되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자주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다. 어디선가, 어느 독자가 내 작품을 읽겠구나 하고 상상하더라도 그 독자가 어떤 생김새를 하고 있을지, 몇 살일지, 어떤 성격의 독자일지에 대해서는 상상이 닿지 않는다. 더구나 외국의 독자는 상상 밖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 낭독회를 통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독자들을 만났다. 그들과 한국의 독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는 했으나 작품을 통해 느끼는 것, 작품을 읽은 뒤 오는 불편함을 수상쩍게 바라보는 것 등은 거의 같았다. 외국의 독자들도 한국 독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한국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궁금해했다.
그걸 보면서 낭독회 당시 청중 중 누군가 했던 질문(한 대학의 낭독회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이 있었다.)처럼 한국문학은 따로 세계화를 궁리할 것도 없이, 이미 문학 자체가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 질문을 했던 사람도 나중 어느 자리에서 좀 어리석은 질문이었다고 덧붙였으나, 작가가 문학에 담는 정서, 사상, 감정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보편적 개인의 생각이므로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 사실 나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에도 잘 수긍하지 못한다. 그 말의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과장되어 있으며 특정하고 편중된 정서에 기대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섯 차례의 낭독회를 통해서 그저 보편적 존재로서의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는 문학이라면 세계 어느 곳의 독자라도 읽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걸, 국경 너머의 독자들을 보면서 새삼 실감했다. 개인적으로는 국경을 넘은 어느 자리에서도 내 소설이 읽히고 있으며, 일부 독자는 내가 쓴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소설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국경 너머의 독자들과 그들을 위해 번역될 언어를 의식하며 소설을 쓰게 되지는 않겠지만, 작가로서 암암리에 품고 있었던 국경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것만으로도 독자들의 눈매를 바라보며 작품을 읽었던 다섯 번의 낭독회는 자못 의미 깊었다.